

주님이 함께하시는 제단

교회 개척 37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팔복’ 시리즈

주 안에서 외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영적 배부름의 축복을 받는다.

나의 생명, 나의 주님~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받아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케냐 셀마 요하네스 성도 간증.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업터를 일구며 어려움을 때 더욱 충성하니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이재근 장로의 고백.

만민뉴스

제899호 2019년 7월 2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함께하신 교회”

교회 개척 37주년 맞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7월 28일 주일 오후 3시, 우리 교회가 개척 37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축하 공연을 갖는다.

예능위원회 소속 닥시오케스트라의 오프닝 연주, 김현재 자매의 하프 독주 및 이지혜 자매의 독무, 예술선교단의 무용에 이어 금관양상블과 남성4중창단이 함께하는 파워풀한 무대가 펼쳐진다. 그 뒤 최효진, 김홍룡, 이종화 집사가 인도하는 회중찬양이 진행된다.

이때 빛의소리중창단과 크리스탈싱어즈, 사랑울동단, 오로라워십팀 등 예능위원회 소속 팀들의 찬양·위십과 성도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지난 37년간 우리 교회를 친히 인도해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개척 때부터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거듭해

우리 교회는 1982년 7월 25일 태양이 작열할 때,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3명의 성도로 10평 남짓한 성전에서 ‘보배 중의 보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개척예배를 드렸다.

당시 이재록 전도사의 기도를 통해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나 초대교회처럼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짐으로 부흥을 이뤄 1984년 12월, 200평의 성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후 교회 개척 4년 만에 등록교인 3천 명이 넘는 대교회로 성장했으며, 1991년 2월에는 등록교인 1만 명을 돌파했다.

1991년 7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가 형성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92 세계성령화 대성회 공동대회장, 광복 50주년 기념 평화통일희년대회 실무대회장 등 각종 교계 행사에서 일익을 감당하며

민족복음화에 앞장섰다. 계속되는 부흥 속에 1993년 2월에는 미국 ‘크리스천 월드’지에서 선정한 세계 50대 교회에 속하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였다.

1993년 8월에는 미국 180개 교회 연합으로 열린 ‘위

생명의 말씀과 권능으로 전 세계 복음 전파

하나님께서 1998년부터 시작된 교회적인 세 차례의 시험을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통과하게 하시더니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게 하셨다. 2000년 7월, 우간다를 시작으로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미국 등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많은 나라에서 해외 연합대성회를 개최하여 폭발적인 권능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그 결과 회교, 힌두교, 가톨릭 신자들이 개종함은 물론 무수한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특히, 교회 개척 25주년에 시작된 이스라엘 선교 및 2009년 9월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를 통해 이스라엘 기독교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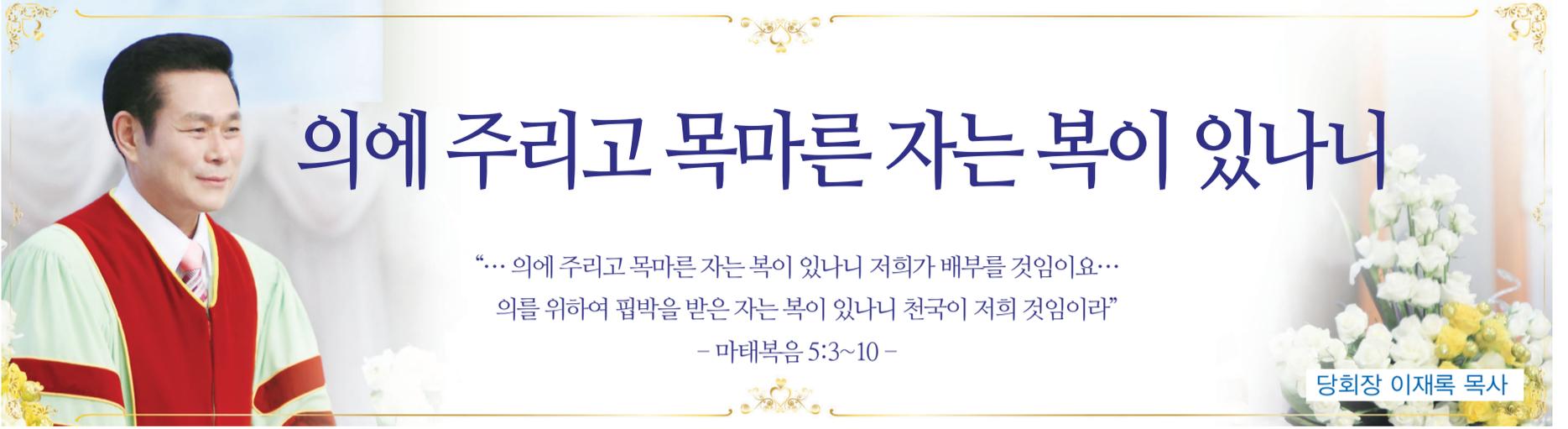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심으로 이 제단과 함께하심을 보장하고 계신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교회는 무수한 기도와 금식으로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풀이받은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GCN방송과 책자,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함으로 영혼 구원은 물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영적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오늘도 멈추지 않으며, 전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온전히 이뤄질 것이다.



싱턴복음화 연합대성회’, 9월에는 ‘LA복음화대성회’에서 이재록 목사가 주강사로 복음을 전했으며, 1996년과 1997년에는 북미뿐 아니라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도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 마태복음 5:3~10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옛 속담에 '사흘 굶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굶주림의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빗대어 한 말이지요. 만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나날이 계속된다면, 오로지 먹을 것에 대한 간절함이 극에 달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고픔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이 목마름입니다. 사람의 몸은 약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체내의 수분을 2%만 잃어도 심한 갈증을 느끼며, 4%를 잃으면 몸이 쇠약해지면서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고, 10%를 잃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하지요. 이처럼 물은 우리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기에 그 필요성도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주리고 목마른 것은 생명을 앗아갈 만큼 고통스러운 것인데, 주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참된 복의 네 번째 관문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일반적으로 의(義)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道理'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친구들 간에 잘못된 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믿는 신념을 의라고 내세우며 사회의 부조리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 뜻을 좇아 나가는 것이요, 선과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성결을 이루기까지 거쳐야 할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시 1:1~2).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시편에 기록된 고백과 같이 밤낮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양식 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시 119:147~148). 지식으로 답아 두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

해 의에 주리고 목마르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면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릴까?' 하며 마치 갈급하고 굶주린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열심히 순종해 죄를 버리고 진리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배고픔을 채워 줄 양식과 갈증을 해소시킬 음료일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시며, 이에 앞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 곧 예수님의 살이란 하나님 말씀을 뜻하며,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양식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 양식을 삼았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곧 우리 영혼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 영적으로 배부른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2장을 보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젖먹이 때를 지나 아이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만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아이의 때를 지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죄

가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청년의 때가 됩니다.

영적인 청년의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한 믿음이 있기에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듣는 대로 죄악을 싸워 이기는 단계입니다. 시험 환난이 와도 굶힐 줄 모르는 담대함이 있으므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며 원수 마귀 사단과 세상을 이기고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비로소 근본 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깊고 높은 차원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님의 근본과 천지창조를 비롯한 무수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에 그 마음에 맞춰 온전히 순종해 가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강, 명예, 권세, 부, 자녀의 축복 등 모든 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축복

이처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는 만큼 신령한 차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를 더하는 만큼 원수 마귀 사단을 능히 이겨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으며, 점차 신령한 차원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게 되면 범사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말씀한 대로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시험 환난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피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벗어날 방법을 알려 주시지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을 받으며 범사에 형통한 길로 인도받아 날마다 그 입술에 간증이 넘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와 악을 깨달아 쉽게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니 성결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결을 이루는 과정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혹은 미세한 허물들은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 성령이 밝히 조명해 주시면 자신이 어떤 분야를 더 온전히 이뤄야 하는지를 깨닫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뚫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진리를 행해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순간순간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 나갈 때 더욱 영혼이 잘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얼마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

님을 생각하고 주야로 말씀을 듣고 읽으며 묵상하는지,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은 물론, 장차 천국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셀마 요하네스 성도 (46세,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저는 집안일은 물론 제 옷조차 스스로 갈아입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 항상 더러웠지요. 이에 자녀들조차 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싫어했습니다. 치료받기 위해 주술사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했지만 오히려 많은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개종하며

이런 저를 위해 친구(엘리스 카리미)는 집안일을 해 주며 저와 아이들도 함께 보살펴 주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카리미뿐이었지요. 기독교인인 카리미는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치료해 주지 않으세요?” 하며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이라면, 저는 케냐에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니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알려 주세요”라고 기도했지요.

이때 주님께서 놀랍게도 제 딸의 꿈을 통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흰옷에 갈색 샌들을 신은 분이 딸에게 나타나 “엄마에게 만민교회로 가라고 말해 주라”고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바로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였지요.

2016년 6월, 저는 친구와 함께 나이로비만민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지만 꿈을 통해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남편은 제가 이슬람교를 떠났다는 이유로 이혼하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자동차, 집, 돈 등 온갖 방법으로 회유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전혀 굽히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자 아이들을 데리고 수단으로 떠나 버렸지요.

모든 질병을 치료받고 축복받아 사랑의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시 GCN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았고, 담임 정명호 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저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 많은 빛도 다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물론 제 기억력도 소생돼 전에는 어떻게 요리하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고, 성경 한 구절을 3일 걸려 외우고도 또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성경을 100구절이나 암송할 수 있지요. 할렐루야!

어느 날, 저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휴거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지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방문하셨는데, 아프리카로 가시면 아프리카인처럼 보였고, 아시아로 가시면 아시아인처럼 보였습니다. 인도, 아랍, 미국 등 방문하는 나라의 사람들처럼 바뀌셨지요. 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 하시며 곧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수만이 휴거되고 많은 이가 남겨져 혼돈에 빠졌고, 두려워 울며 공포로 소리쳤지요.

저는 이 환상을 세 번이나 보았고, 모두 내용이 같았습니다. 그 뒤 저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결하기 위해 힘써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예배와 봉사활동을 기쁨으로 참석하고 다니엘철야를 통해 깨어 기도하고 있지요. 또한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알립니다

수유실이 1유이실 입구 쪽에 마련되어 있어요~

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들은 술을 마시면 종종 저를 때렸는데 어머니는 저를 보호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며 어둡고 쓸쓸하게 살 때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저는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3인치 바늘을 삼키기도 하고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는가 하면, 깨진 병 가루를 먹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지요.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던 중, 우연히 회교사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혀 알지 못했기에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찬가지로 생각한 것이지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독실한 무슬림인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고 케냐에 정착하게 되었지요.

온갖 질병과 함께 기억력마저 상실되었으나

그런데 2006년,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약해져갔습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허리는 구부릴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멈추지 않는 두통에 귀도 잘 들리지 않았고, 잘 걷지도 못했지요.

고통 속에 잠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곤 했는데, 이듬해에는 잠은 잘 수 있게 되었지만 졸음이 계속 쏟아졌습니다. 눈이 충혈 되고 기억력도 사라져 집 밖에 나가면 길을 잃으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케냐, 나미비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병원을 다녔지만 의사들은 제 병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저를 미워하며 “왜 죽지 않느냐”고 소리치곤 하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1997년 지인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건네받은 저는 눈물로 책장을 넘기며 밤을 새워 읽곤 하였습니다.

교회는 어릴 적에 여름성경학교를 다닌 정도였지만, 제 안에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과 참된 것을 좇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후고 만민중앙교회 금요일 야예배에 참석한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에서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복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성령 충만한 분위기에 호감을 가졌지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교회가 너무 좋으니 함께 가보라고 하였고, 행복해하는 저를 보고 아내도 흔쾌히 승낙해 저희 부부는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가정에서 질병이 떠나고

만민의 양 떼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자주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시작한 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니 여러 질병이 연례 나았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자주 마셨습니다. 그러니 위장 장애가 심했고, 각종 피부염과 두통 등 질병들이 있었으나 교회에 다닌 후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김은진 권사)도 학창 시절부터 있던 심각한 빈혈 증



이재근 장로 (54세, 3대대 22교구)

세를 치료받았으며, 난시가 사라지고 시력까지 좋아져 중학교 때부터 착용했던 안경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지요. 자녀들도 주 안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업터를 일구며

2004년, 저는 의류 계통에서 일한 경력이 있기에 수출 전문 의류회사들과 디자인협업을 하는 (주)썸플나라를 개업하였습니다. 사업터의 주인은 하나님 이시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서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2008년,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회장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책임져 주십니다” 하시며 회사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

데, 문제가 곧 해결되어 어려움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당회장님께서 오직 선과 사랑, 섬김으로 성도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은혜를 받아왔기에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원들을 섬기하고자 했습니다.

직원 중 대학생을 자녀로 둔 아버지가 등록금 가불을 요청했을 때 그냥 쓰시라고 드린 일도 있고,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기도 했지요.

회사가 어려울 때도 직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회식을 하곤 했는데, 직원들은 오히려 “사장님!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회식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우리가 몸을 보양하고 힘을 잘 비축해 놓아야지요” 하며 힘을 주곤 했지요.

제게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주

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주의 일에 충성하니 조장연합회 수석부회장, 1장로회 봉사부장, 청년선교회 부장 등 사명이 더해졌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충성하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하나님의 은혜로 순탄하게 지내오던, 2017년 12월경의 일입니다. 계약의 70~80%를 차지하는 주거재 바이어가 갑자기 해외 이전을 통보해 와 저희 회사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니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여 년을 거래해 온 바이어였기에 저는 개인적인 경험과 인맥을 활용해서라도 협상해 보려 했지만 그쪽에서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할 뿐이었지요.

일반적인 계약 파기나 다름없

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함께해 준 것에 감사하며 끝까지 선으로 대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바이어는 출국한 뒤 저희 회사와 연락을 끊어 버렸지요.

저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로 더욱 의지하는 한편, 각종 헌금과 십일조 등을 이전보다 더 정성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지요. 또한 회사의 어려움과 맞물린 교회적인 연단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쓰며 어찌하든 더 충성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행군하던 2018년 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존 바이어가 떠난 자리를 대신할 규모가 더 큰 새로운 바이어가 함께할 수 있도록 형통하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거래처를 예비해 두셨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제는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만 따라가니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사랑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셔서 아내는 조장으로, 큰 딸(이정아)은 성가대와 무지개중창단으로, 작은 딸(이정연)은 청년봉사부로 충성하며 온 가족이 아름다운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좋은 나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당회장님께서도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명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임시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선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선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선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선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선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2213-2073
- 의정부지성선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선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감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3430-3312